

추경 편성계획 놓고 입장차 ‘팽팽’

도, 지방세 감소로 재원확보 난망... 2867억 부족 의회, 전 도민 대상 긴급재난금·민간행사 등 지원

2년 만에 이뤄질 예정이던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가 2차 추경 예산 편성계획안을 놓고 서로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무산됐다.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및 문화 향유 등을 위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개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4일 제주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안'에 따르면 세입은 833억원 규모이고, 세출은 3700억원으로 이번 2차 추경에서의 부족 재원은 2867억원이다.

세입에서는 지방세 250억원과 지

방교부세 428억원이 감소했고 세외 수입 191억원, 중앙지원사업 변경내 시분 593억원, 2019년도 결산 잉여금 등 조정·내부거래 등 반영 727억원이 늘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574억원 규모였으나 조정이 이뤄졌다.

세출에서는 법정필수경비 1172억원, 중앙지원사업 793억원, 국가직접 지원사업 320억원, 용도지정목적사업 142억원, 환경분야 협약사업 185억원, 기타사업(사회복지 등) 388억원 등 3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위기 대응 예산 700억원이 포함됐다.

위기대응 예산은 제주형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전도민 무료접종(128억원), 2차 유행 대비 방

역물품 비축(95억원), 소상공인 특별보조(40억원), 기금유자 이차 보전(60억원), 제주사랑상품권 등 발행(30억원), 희망일자리 확대(60억원), 민생경제 붐업사업(60억원) 등이다. 특히 재난지원금의 경우 도의회에서 요구한 695억원 규모의 전도민 지급의 경우 현재 마련한 재원 468억원(중위소득 100% 이하)에 추가로 227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추경 편성계획에 있어 도는 감염원의 원천차단을 위한 다중 대면접촉 행사·축제·박람회·세미나는 물론 국내의 교류·연수 등을 전면 취소하고 행정 내부경비의 지출구조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정필수경비는 물론 용도지정 목적사업, 협약사업, 연내 집행 가능한 경제위기 극복 사업 등에 필요한 필수재정 확보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세출 효율화와 행사·축제 등의 대면사업 전체 삭감 등의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1670억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구입보조금 등 국고보조사업을 조정해 250억원을 확보하고 재정안정화기금(226억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60억원), 주차장사업특계(76억원), 장기미집행대지특계(113억원) 등의 전출금을 재정위기를 고려해 미전출해 모두 949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번 2차 추경에 따른 예산안은 7월13일 시작하는 임시회에 앞서 7월 2일 이전에 예산편성과 함께 도의회 제출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도와 도의회간의 의견 조율이 얼마큼 이뤄질지가 도민사회의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물보라 일으키며 착륙하는 여객기. 많은 장막비가 내린 14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 제주에 도착하는 비행기들이 엄청난 물보라를 날리며 안전하게 착륙하고 있다.

제주대, 찾아가는 입시 설명

제주대학교(총장 송석연)는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도내 19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시 설명회 일정은 6월 17일 제주대사대부고, 19일 한림고·오현고·서귀포고, 24일 남녕고·제주중앙여고, 25일 애월고, 26일 신성여고, 29일 제주중앙고·제주여고·영주고, 30일 대정고·대정여고, 7월 1일 세화고·삼성여고, 2일 성산고·제주제일고, 3일 서귀포여고·대기고 순으로 짜여졌다. 문의 754-3995. 진선희기자

알림

2020 한라일보 청소년기자단 모집

한라일보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아 도내 청소년들에게 주제적 참여활동을 통한 진로체험 기회와 사회·창의·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NIE (Newspaper In Education·신문활용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기자단'을 운영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 모집대상: 도내 중·고등학생 10명
- ▶ 모집기간: 6월 23일까지 선착순
- ▶ 모집방법: 이메일 접수 ejoh@ihalla.com ex)제목에 '청소년기자단 신청합니다' 내용에 신청자 이름/학교/학년·연락처 *접수 후 확인 전화 바랍니다
- ▶ 사업내용: NIE 교육 및 지역탐방 *10월31일까지 총 10회 운영(주말, 변동 가능) NIE 보고서 콘테스트
- ▶ 문의: 064)750-2271 (오은지 기자)

제주 학업중단 학생 4년간 2000명 넘어

2016년부터 작년까지 초중고생 2010명 중단 고교생은 검정고시 이유 초중학생 유학 등 많아

제주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최근 4년간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2010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448명에서, 2017년 491명, 2018년 546명, 2019년 52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4월 기준 40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학업 중단 학생의 44.3%(891명)가 고등학생이었으며, 초중학생 32.8%(660명), 중학생 22.8%(459명)로 뒤를 이었다.

학교급별 학업 중단 사유를 보면 먼저 고등학교는 검정고시가 410명

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출국 156명, 부적용 100명, 질병 29명 등이었다. 이와 관련 도내 고등학생 검정고시 합격 현황은 2016년 104명, 2017년 84명, 2019년 90명이다.

이어 중학교는 미인정 유학(짧은 기간이나 혼자 해외에 나가는 등의 이유로 장기결석 처리된 경우) 157명, 대안교육 82명, 부적용 78명, 해외출국 47명 순이었으며, 초등학교는 해외출국이 3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인정 유학 153명, 대안교육 95명 등이 뒤를 따랐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에서도 학업 중단 학생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1월 22일 교육청 직속기관인 탐라교육원에서 중학교 학업 중단 학생의 복귀를 위해 마련된 '합성교실'을 올해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으며,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오는 17일까지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인 '어울림 학교'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 오늘 출범

도의회서 민·관 공동참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가 15일 오후 1시 도의회에서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주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식'을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도의회 김태석 의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송승문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이사장, 도내 정당 및 시

민사회 단체(124개) 등이 참여한다.

출범식은 지난 5월 14일 4·3유관 기관 토론회에서 협의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기구 구성의견을 토대로 지난 8월 4·3관련 단체 실무 회의에서 논의한 민·관이 참여하는

공동행동기구 출범을 결의한 내용으로 행위로 옮기는 자리이다.

정민구 위원장은 "출범식은 4·3특별법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는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출범식을 기점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시민과 함께한 40여년

제주 농협 최초 예금 2조원 달성



고객님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시농협
 조합장 고봉주

상임이사 김태수 | 상임감사 고군찬 | 감사 김영철 | 이사 변창돈, 김영호, 오공인, 현경하, 문성숙, 백성철, 박창범, 변성호, 현성희, 이윤석, 김필환, 고희수 | 사외이사 윤창완